2018, 2019 디자인 상상·행동 '디자인평화협정' 전을 되돌아보며

2018, 2019 Imagination and Action by Design Looking Back on the Exhibition, 'Design Peace Agreement'

김영철(홍익대학교)
Kim Youngchul (Hongik University)

2020년 코로나 19가 세계의 환경, 질서, 기존에 살아온 사고방식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지금, 한때라고 생각할 만큼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한반도 통일시대'라는 말은 오늘의 주요 이슈가 아닌 듯하다. 구구절절 그런 이유를 이 지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과 조건이 여러 매체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은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속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분단 상황에서 지난 남북관계의 긴장과 완화 모드는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남북관계가 결코 남북만의 관계로 풀리지 않는 주변국 및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함께한다는 것쯤은 상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의 활발한 교류, 나아가 통일을 가늠하는 일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

2019년 12월 30일 〈디자인평화협정〉 전이 열린 시기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전시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있었다.

-

우리는 2018년 판문점(4.27)에서, 통일각(5.26)에서, 싱가포르(6.12)에서, 평양(9.19)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던 그 날들을 생각하며, 2019년 새날의 희망을 꿈꿨다. 그러나 하노이(2.28)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희망 열차는 12월 현재까지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멈춰 서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멈춘 열차 안에서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분명한 느낌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엄습이다. 혹자는 "그러한 사실,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한다.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만 맘껏 상상하고, 너의 운명을 개척하라"고 비웃음과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말을 전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9년 12월 30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희망 열차가 남북을 관통하여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유럽까지 달리는 새로운 세상을 아직도 꿈꾼다. 그 새로운 세상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국가, 또는 지역의 군사·정치·경제적 패권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서로를 존중하고 교감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의 종결을 고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다. 그 협정의 당사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각 개인 모두다.

이에 정치적 계략에 함몰된 국가를 초월하는 인류적 평화협정를 꿈꾸며, 그런 평화의 연대로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자인평화협정'이라 부른다.

지금, 여기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모든 상상력에 대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한다.

- '디자인평화협정' 전 전시개요 중에서

소개하는 '디자인평화협정' 전은 2018년 사건들 속에서 어쩌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져 70년을 훌쩍 넘은 분단의 역사가 마감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시작됐다. 실제 이 해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남북관계,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관한 논평과 연구서, 출판물들이 지난시기와 차원이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전시가 이뤄진 배경을 보면 처음부터 '디자인평화협정'이라는 제목을 상정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2018년, 디자이너들 역시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안병학, 김상규 교수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이제부터라도 남북의 시각문화 환경을 조망하고,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는 모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과 이에 동의한다는 화답을 시작으로 이 일은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은 남북의 디자인, 시각문화를 미리 학습한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현재까지의 상황과 성과를 듣는 강연회를 개최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1회: 남북 시각문화 예술교류의 과거와 현재(배인석,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2회: 북한 산업미술의 특징과 유형(최희선, 중앙대 교수), 3회: 평양의 도시건축(임정우, 홍익대 교수), 4회: 비평적 디자인: 모두를 위한 피자(김황, UNIST 교수)) 여기서 우리는 남북 시각문화에 대한 확연한 차이와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서방국가 및 주변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보와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에 비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해 안병학 교수와 공동 주제 수업으로 '새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디자인으로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상적 차원을 넘어 훨씬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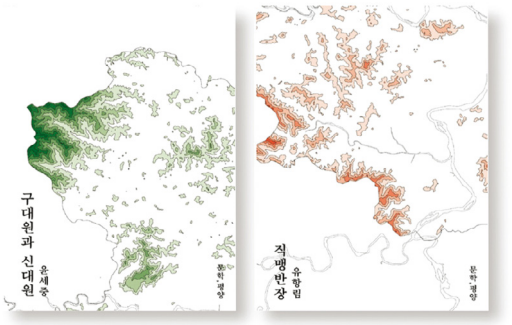
예컨대, 이미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남북을 통합한 〈KL: 코리안축구리그〉, 〈2036 평양통일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에서부터 〈북한에서 한 달 살기〉, 〈북한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매거진 NK Style〉, 〈문학작품 속 평양 여행〉, 〈문학으로부터의 편견〉 등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생활 중심 디자인들이었다. 더 나아가 남북한 사회를 더 근원적으로 관찰하는 〈서던 팩시밀리즘〉, 〈유토피아〉, 〈숨겨진 언어〉, 〈대한민국 헌법 속 북한에 대한 모순〉 등의 디자인 리서치 작업이 나왔고, 보다 구체적이며 실용적 디자인으로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편리하게 해석해주는

〈한반도사전〉, 〈한한사전〉 등이 앱으로 제작되었다.

이 밖에도 남북관계를 넘어 변화될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작품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로 '동아시아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었다.

[그림 1]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사회문화적스튜디오 '새로운 한반도' 프로젝트 수업장면

좌에서 우
[그림 2] 〈2036 평양통일올림픽〉, 김세현, [그림 3] 〈숨겨진 언어〉, 박윤수, [그림 4] 〈KL: Korean League〉, 심찬보



좌에서 우
[그림 5-1, 5-2] 〈남북극락지옥 삐라도〉, 장효민, [그림 6] 〈약속의 간극〉, 신혜원, [그림 7] 〈문학 작품 속 평양〉, 이진주

이 수업의 결과를 그해 7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자 했으나, 학교의 사정으로 예약된 전시가 불발되어 아쉽게도 한참을 표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하노이 북미회담(2.28)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2018년과는 사뭇 달랐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관심과 응원이 사라진 새로운 시도는 매우 맥 빠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연구와 활동이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에 활동의 성과와 다음을 위한 준비의 매듭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하여 새롭게 전시기획에 동참한 대학원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보태져 마침내 2019년을 넘기지 않고 '윤디자인 갤러리'에서 전시와 강연 행사를 열게 되었다. 이때 수행했던 모든 작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연락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과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전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북한을 10회 이상 방문하여 북한의 최신 상황을 VR로 소개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Aram Pan)을 전시 초청작가와 강연자로 모시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문화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연수문화재단 대표 박영정 박사의 '감각의 혁신, 북한 디자인 트렌드'라는 강연은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 일반인에게 신선한 관점과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전시행사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Part 1: 디자인평화협정

- 동아시아 핵-군사훈련-신무기개발억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 동아시아를 비무장지대로!
- 동아시아 역사 왜곡(위안부, 강제이주노동자, 독도 문제 등)
- 동아시아 자연생태, 문화 다양성 보전을 위한 통합화폐
- 동아시아 평화의 길, 다국적 하이패스 여권
- 세계 어린이 평화시민학교
- 동아시아 생태평화도시의 약속

Part 2: 디자이너,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다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 현재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에 관한 생각의 틀은 남북을 관통하는 한반도를 전제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현재의 남북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과 미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겸비한 다양한 작업들을 소개한다.

Part 3: 평화협정, 평양을 보다

편견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살펴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겠지만 남과 북, 지금은 분명 각자의 편견을 가진 시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다름과 같음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보여진 것이

[그림 8] '디자인평화협정' 전 전시장 스케치

[그림 9] '디자인평화협정' 전 포스터 및 전시작품

[그림 10] 〈DPRK 360_VR 평양투어〉, Aram Pan

무엇인가? 당장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우리를, 나를 뒤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때 우리가 하나였음을 잊고 있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이 갈라진 한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 DPRK 360_VR 평양투어(Aram Pan)
- 북한 생활용품, 디자인 및 시각문화 스케치

특별강연

- 특별강연 1 : '감각의 혁신, 북한 디자인 트렌드', 박영정(연수문화재단 대표)
- 특별강연 2 : 'North Korea's visual culture: Advertising, Design', Aram Pan(DPRK 360 Photographer)

남북디자인교류를 위한 준비

2019년 7월 안병학, 김상규 교수와 지난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읽어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시각문화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미뤄뒀던 '한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 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7월이 처음은 아니었으며, 이미 2019년 초반부터 같이 고민해 왔던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8월 14일 뜻을 같이하는 여러 디자이너의 참여와 노력으로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총회'가 열리고 지금의 학회 형태를 갖추었다. 특별 분과로 조직된 '남북디자인교류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디자인의 연구 대상으로 북한 디자인 연구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이었다.

2020년 8월 현재까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희망적 메시지는 없는 것 같다. 국제정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선거, 미·중 갈등, 한·일 갈등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매우 흐리게 하고 있다. '디자인평화협정' 전 취지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멈춘 열차 안에서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분명한 느낌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엄습이다."라는 문장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큰 줄기의 변화는 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로 인한 인류의 깊은 반성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 중심의 국제 질서 논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지구환경을 돌보지 않은 자본과 소비 중심의 가치관이 자연의 반격으로 무서운 속도로 힘없이 무너져 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이렇다. 여러 조건과 상황으로 얽힌 지금의 현실이 누구

하나의 승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를테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 자연과의 무모한 싸움에서 단순한 해결책으로 팬데믹(pandemic)과 자연재해를 극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의 승리나 극복이 아니라 인류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평화로울 수 있으며, 인륜의 보편적 가치와 서로를 존중하고 교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라는 순서가 이럴 수 없는 상황을 이끌고 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직도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뜨거웠던 2018, 2019년 어제와 같은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여기에 그때를 기록하는 이유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정치적 계략에 함몰된 국가를 초월하는 인륜적 평화협정를 꿈꾸며, 그런 평화의 연대로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우리가 디자인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음이다.